

성춘택 교수 | 5면 인터뷰

창의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문명을 연구하는  
'글로벌 문명교류사 교육연구팀'이 BK21  
4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뒤늦은 부고 | 8면 기획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권대희 씨를 추모한다.

제 1666 호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대학주보

주요 토론주제 :  
2021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침체된 학생자치,  
어떻게 할 계획인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53대 총학생회  
1차 후보자 토론회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후 7:30  
장소 : 크라운관  
방식 : ZOOM,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한  
비대면 진행



서울캠 총학 선거구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KHU:KEY] 선본과 [회기] 선본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김경민 기자)

## 학생제안 교양 수업 개설된다

이정민 기자 michelejm@khu.ac.kr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교양 수업이 개설된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생들이 만드는 배분/자유이수 공모전'의 결과다. 해당 공모전은 배분/자유이수 영역에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개설하여 교과과정 구성에 학습자인 학생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이며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학문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8개의 팀이 신청했다. 1차 예심을 통해 20개 팀이 걸러지고, 2차에서는 학생투표 100점에 교수 심사점수 100점을 합하여 최종 5개 공모작이 선정됐다. 학생투표에는 총 849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수 심사는 ▲창의성 ▲충실성 ▲현실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최종 5개 공모작은 ▲법의학으로 보는 죽음의 재발견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생활 속 금융 ▲한국 수화언어와 농문화 ▲법의 이해부터 객관적 사고까지 ▲장애를 극복하지는 않았습니까만 순으로 많은 점수를 얻었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상장 및 등록금 외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공모작 5편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정규 교과과정(개설 후보 과목)에 편성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무빙' 측은 "교강사 채용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개설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개설되는 수업 목록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업들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처음 진행한 공모전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공모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회 투표, 국제캠 '종료' 서울캠 '시작'

양캠 선거일정 마무리 수순  
공정·정당성 논란 불거져  
당선자, 1월부터 임기 시작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지난 27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투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선거가 진행됐으며 최종 투표율은 63.94%를 기록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투표는 30일부터 진행된다.

국제캠의 단과대학별 투표율은 ▲생명과학대학(72.10%) ▲국제대학(71.86%) ▲외국어대학(70.08%) ▲응용과학대학(69.68%) ▲체육대학(68.85%) ▲예술디자인대학(61.26%) ▲공과대학(59.04%) ▲소프트웨어융합대학(55.85%) ▲전자정보대학(55.29%) 순으로 높았다.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선본)는 당선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을 최종 확정짓고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중앙동아리연합회, 공과대학과 단독 후보가 낙선한 선거구의 학생회장단 선출은 12월 재선거나 내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캠 선거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지난 18일, 특정 선본 후보자와 단위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원장)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해당 선관위원장 두 명을 해임했다. 해임된 선관위원장 중 한 명인 이지영 응용과학대학(응대) 전 선관위원장(우주과학 2017)은 20일 해임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지영 응대 전 선관위원장은 자신의 선관위원장 해임 과정에 대해

"세칙의 적용에 따른 해석이 아닌 끼워맞추기 해석"이라며 이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표한 상태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학생총투표를 상징하기 위해 졸속으로 의결을 진행했다는 응대 단과대학운영위원회(단대운영위)의 문제제기도 논란이었다. 국제캠 중운위는 응대 단대운영위의 공개 문제제기 이후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학생총투표를 오는 12월 재선거나 내년 3월 보궐선거 시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운위가 의결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캠의 학생회장단 투표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투표를 위한 기표소는 청운관 2곳, 행복기숙사, 무용학부,

치과대학 총 5곳에 마련된다.

서울캠 학생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 15일 호텔관광대학 구태근 전 선관위원이 특정 선본 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명 링크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일이 발생하며, 선관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선관위원은 지난 16일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해임됐다. 또한 24일 정책공청회에서 총학생회 '회기' 선본은 서울캠 중선관위가 선거시행세칙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며 중선관위의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1차 정책공청회 참여를 거부했다.

알림

사령  
(명 정기자)

이태영(시각디자인학 2019)  
이현정(국어국문학 2019)

※ 이번 호가 2학기 종간호입니다.